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2026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 2(1) 단어의 짜임과 새말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단어’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이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이지. 예를 들어, ‘하늘’은 단어이면서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먹었다’라는 단어는 ‘먹-’, ‘-었-’, ‘-다’처럼 세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나눈 형태소를 자립성 여부나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 분류하는 연습을 꼭 해야 한단다.



네, 선생님.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바탕으로 단어를 나누는 합성어와 파생어의 차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 많은 학생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야. ‘밤나무’를 볼까? ‘밤’과 ‘나무’는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이지?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만나면 ‘합성어’가 된단다. 반면 ‘햇밤’에서 ‘햇-’은 ‘그해에 난’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사야. 이처럼 어근 ‘밤’에 접사 ‘햇-’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는 ‘파생어’라고 부른단다.



아, 그럼 ‘눈사람’은 어근 ‘눈’과 어근 ‘사람’이 만난 합성어고, ‘방귀쟁이’는 어근 ‘방귀’에 접사 ‘-쟁이’가 붙은 파생어군요! 혹시 ‘새말’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나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그림말'처럼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누리꾼'처럼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해. 물론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친구)'처럼 **단어의 첫 글자만 따서 만드는 새로운 방법**도 있단다.



그렇군요! 단어의 짜임을 아니까 새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쉽게 알 수 있네요.

맞아.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면 처음 보는 단어라도 그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단다. 하지만 새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해.



네, 선생님!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AI 직전 보강 확인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단어’는 _____ 말이고, ‘형태소’는 _____ 단위이지. 예를 들어, ‘하늘’은 단어이면서 _____이지만, ‘먹었다’라는 단어는 ‘_____’, ‘_____’, ‘_____’처럼 세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나눈 형태소를 _____ 여부나 _____ 유무에 따라 분류하는 연습을 꼭 해야 한단다.



네, 선생님. _____ 형태소와 _____ 형태소, _____ 형태소와 _____ 형태소!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바탕으로 단어를 나누는 합성어와 파생어의 차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 많은 학생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야. ‘밤나무’를 볼까? ‘밤’과 ‘나무’는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_____이지? 이렇게 _____과 _____이 만나면 ‘합성어’가 된단다. 반면 ‘햇밤’에서 ‘햇-’은 ‘그해에 난’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_____야. 이처럼 _____ ‘밤’에 _____ ‘햇-’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는 ‘파생어’라고 부른단다.



아, 그럼 ‘눈사람’은 _____ ‘눈’과 _____ ‘사람’이 만난 _____고, ‘방귀쟁이’는 _____ ‘방귀’에 _____ ‘-쟁이’가 붙은 파생어군요! 혹시 ‘새말’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나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그림말’처럼 _____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누리꾼’처럼 _____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해. 물론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친구)’처럼 단어의 _____만 따서 만드는 새로운 방법도 있단다.



그렇군요! 단어의 짜임을 아니까 새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쉽게 알 수 있네요.

맞아.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면 처음 보는 단어라도 그 ___를 쉽게 짐작
할 수 있단다. 하지만 새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의 ___
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_____을 갖는 것도 중요해.



네, 선생님!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2026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2(1) 단어의 짜임과 새말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1. 단어와 형태소】

- 다음 문장을 더 작은 단위인 단어로 나누어 볼까?

문장	감나무가 크다.	→	단어	감나무	가	크다
----	----------	---	----	-----	---	----

단어는 ‘감나무’, ‘크다’와 같이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단어의 개념. 단어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야. 그런데 조사 ‘가’는 홀로 쓰일 수 없는데 왜 하나의 단어로 나뉘었을까? [조사는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서 단어로 인정하기 때문이야.] ([]: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까닭.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까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이번에는 단어를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로 나누어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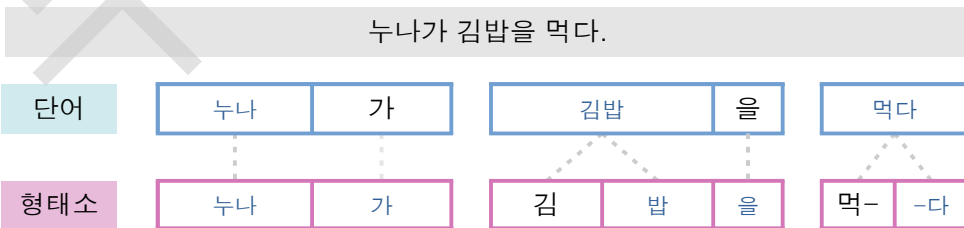
단어	감나무	가	크다	→	형태소	감	나무	가	크-	-다
----	-----	---	----	---	-----	---	----	---	----	----

‘감나무’는 ‘감’과 ‘나무’로 나눌 수 있어. 이때 ‘나무’는 ‘나’와 ‘무’로 더 나누면 ‘나무’라는 단어가 지닌 뜻이 사라지거나,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이 되어서 더 나눌 수 없어.(형태소의 기준에 대한 설명) 반면 ‘크다’는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등이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을 갖는 ‘크-’와 문장을 마친다는 문법적인 뜻을 갖는 ‘-다’로 나눌 수 있지. 이처럼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형태소의 개념. 형태소의 개념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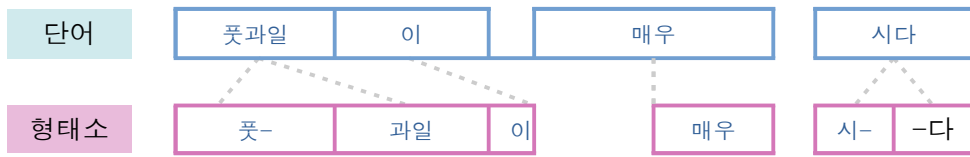
단어와 형태소 이해하기

- 문장을 이루는 단위인 단어와 형태소를 알아보자.

(1)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풋과일이 매우 시다.



(2) 다음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고, **각각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써 보자.** (형태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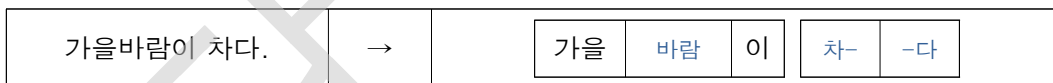
[떠들다, 손바닥, 앉았다, 종이, 지우개]

단어	형태소	개수
종이	종이	1개
손바닥	손 + 바닥	2개
지우개	지우- + -개	2개
떠들다	떠들- + -다	2개
앉았다	앉- + -았- + -다	3개

형태소의 종류 이해하기

2. 형태소의 종류를 알아보자.

(1) 다음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고,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 (형태소를 나누는 두 가지 기준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알아보자.



나는 혼자서도
쓰일 수 있어.

가을, 바람

자립 형태소

예

기준 1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인가?

아니요

나는 다른 말에 꼭
붙어서 쓰여.

이, 차-, -다

의존 형태소

나는 단어의
실질적 의미야.

가을, 바람, 차-

실질 형태소

예

기준 2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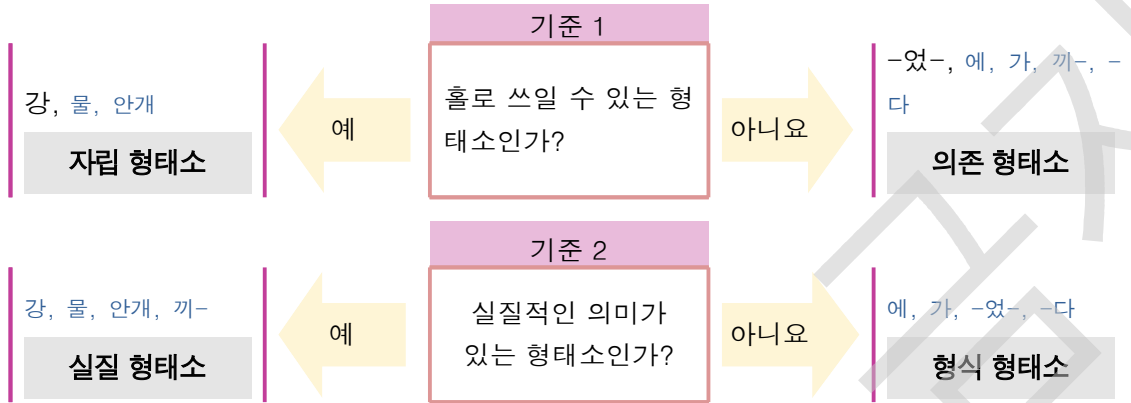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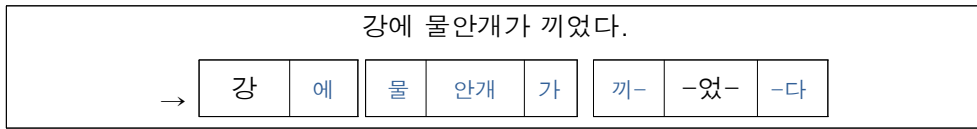
아니요

나는 문법적인
의미만 더해.

이, -다

형식 형태소

(2) 다음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고,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형태소를 제시하고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2026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 2(1) 단어의 짜임과 새말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1. 단어와 형태소】

- 다음 문장을 더 작은 단위인 단어로 나누어 볼까?

문장	감나무가 크다.	→	단어	감나무	가	크다
----	----------	---	----	-----	---	----

단어는 ‘감나무’, ‘크다’와 같이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의 개념. 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야. 그런데 조사 ‘가’는 홀로 쓰일 수 없는데 왜 하나의 단어로 나뉘었을까? [조사는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서 단어로 인정하기 때문이야.]([]: 를 단어로 인정하는 까닭. 를 단어로 인정하는 까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이번에는 단어를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로 나누어 볼까?

단어	감나무	가	크다	→	형태소	감	나무	가	크-	-다
----	-----	---	----	---	-----	---	----	---	----	----

‘감나무’는 ‘감’과 ‘나무’로 나눌 수 있어. 이때 ‘나무’는 ‘나’와 ‘무’로 더 나누면 **‘나무’라는 단어가 지닌 뜻이 사라지거나,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이 되어서 더 나눌 수 없어.**(의 기준에 대한 설명) 반면 ‘크다’는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등이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을 갖는 ‘크-’와 문장을 마친다는 문법적인 뜻을 갖는 ‘-다’로 나눌 수 있지. 이처럼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의 개념. **형태소의 개념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말해.

단어와 형태소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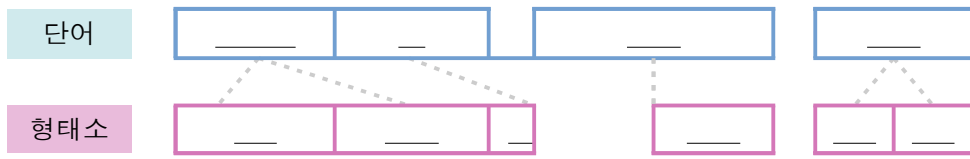
1. 문장을 이루는 단위인 단어와 형태소를 알아보자.

- (1)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누나가 김밥을 먹다.

단어	<u> </u>	<u> </u>	<u> </u>	<u> </u>	<u> </u>	<u> </u>
형태소	<u> </u>	<u> </u>	<u> </u>	<u> </u>	<u> </u>	<u> </u>

풋과일이 매우 시다.



(2) 다음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고, **각각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써 보자.** (형태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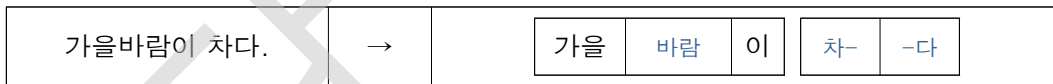
[떠들다, 손바닥, 앉았다, 종이, 지우개]

단어	형태소	개수
종이	종이	1개
손바닥	_____	___
지우개	_____	___
떠들다	_____	___
앉았다	_____	___

형태소의 종류 이해하기

2. 형태소의 종류를 알아보자.

(1) 다음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고,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 (형태소를 나누는 두 가지 기준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알아보자.



나는 혼자서도
쓰일 수 있어.

가을, _____

자립 형태소

예

기준 1

_____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인가?

아니요

나는 다른 말에 꼭
붙어서 쓰여.

이, _____

의존 형태소

나는 단어의
실질적 의미야.

가을, _____

실질 형태소

예

기준 2

_____가
있는 형태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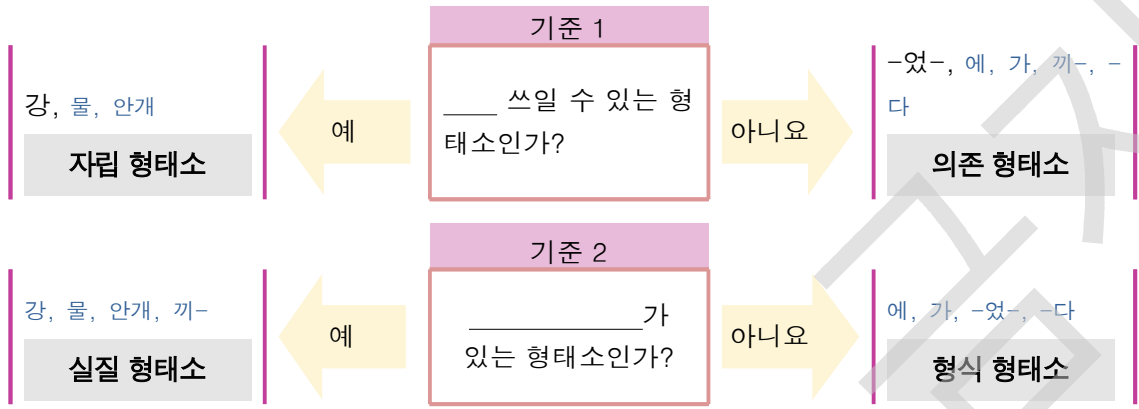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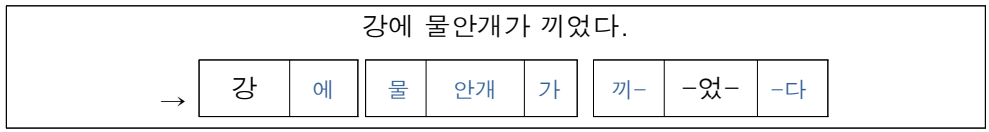
아니요

나는 문법적인
의미만 더해.

이, _____

형식 형태소

(2) 다음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고,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형태소를 제시하고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2026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 2(1) 단어의 짜임과 새말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

단어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또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 되는 말
형태소	뜻 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2.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의 유무	자립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의존 형태소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실질적 의미의 유무	실질 형태소	실질적 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
	형식 형태소	문법적 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

3. 어근과 접사

어근	단어에서 실질적 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접사	항상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 하는 형태소

TEST 1단계

1.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

단어	문장에서 □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은 말의 단위. 또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어 앞말과 쉽게 □리되는 말
형태소	□을 가진 가장 □은 말의 단위

2.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의 유무	□립 형태소	□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존 형태소	다른 말에 □대어 쓰이는 형태소
실질적 의미의 유무	□질 형태소	□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
	□식 형태소	□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

3. 어근과 접사

어근	단어에서 □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접사	항상 어근에 □어 그 뜻을 □한하는 형태소

TEST 2단계

1.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

단어	문장에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쓰일 수 있는 가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말의 단위. 또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앞말과 쉽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되는 말
형태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가진 가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말의 단위

2.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의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쓰일 수 있는 형태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소	다른 말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쓰이는 형태소
실질적 의미의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

3. 어근과 접사

어근	단어에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접사	항상 어근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 뜻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는 형태소

TEST 3단계

1.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

단어	문장에서 □□ 쓰일 수 있는 가장 □□ 말의 단위. 또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 앞말과 쉽게 □□되는 말
형태소	□을 가진 가장 □□ 말의 단위

2.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의 유무	□□ 형태소	□□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형태소	다른 말에 □□□ 쓰이는 형태소
실질적 의미의 유무	□□ 형태소	□□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
	□□ 형태소	□□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

3. 어근과 접사

어근	단어에서 □□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접사	항상 어근에 □□ 그 뜻을 □□하는 형태소

TEST 4단계

1.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

단어	문장에서 ___ 쓰일 수 있는 가장 ___ 말의 단위. 또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___ 앞말과 쉽게 ___ 되는 말
형태소	___을 가진 가장 ___ 말의 단위

2.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의 유무	___ 형태소	___ 쓰일 수 있는 형태소
	___ 형태소	다른 말에 ___ 쓰이는 형태소
실질적 의미의 유무	___ 형태소	___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
	___ 형태소	___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

3. 어근과 접사

어근	단어에서 ___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접사	항상 어근에 ___ 그 뜻을 ___하는 형태소

O / X 문제

【1~5】 「단어의 짜임과 새말」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 1. 단어는 문장에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한다. (O / X)
- 2. '가방'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이다. (O / X)
- 3.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O / X)
- 4. 접사는 항상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한다. (O / X)
- 5.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O / X)

1. X 2. O 3. X 4. O 5. X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2026 중1-2 국어 비상(박현숙) | 2(1) 단어의 짜임과 새말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1. 단어와 형태소】

- 다음 문장을 더 작은 단위인 단어로 나누어 볼까?

문장	감나무가 크다.	→	단어	감나무	가	크다
----	----------	---	----	-----	---	----

단어는 '감나무', '크다'와 같이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그런데 조사 '가'는 홀로 쓰일 수 없는데 왜 하나의 단어로 나뉘었을까? 조사는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서 단어로 인정하기 때문이야.

- 이번에는 단어를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로 나누어 볼까?

단어	감나무	가	크다	→	형태소	감	나무	가	크-	-다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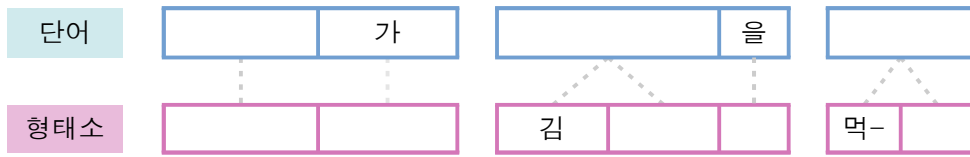
'감나무'는 '감'과 '나무'로 나눌 수 있어. 이때 '나무'는 '나'와 '무'로 더 나누면 '나무'라는 단어가 지닌 뜻이 사라지거나,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이 되어서 더 나눌 수 없어. 반면 '크다'는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등이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을 갖는 '크-'와 문장을 마친다는 문법적인 뜻을 갖는 '-다'로 나눌 수 있지. 이처럼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해.

단어와 형태소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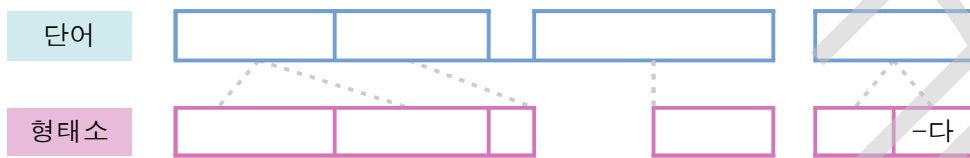
1. 문장을 이루는 단위인 단어와 형태소를 알아보자.

- (1)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

누나가 김밥을 먹다.



꽃과일이 매우 시다.



(2) 다음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고, 각각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써 보자.

[떠들다, 손바닥, 앉았다, 종이, 지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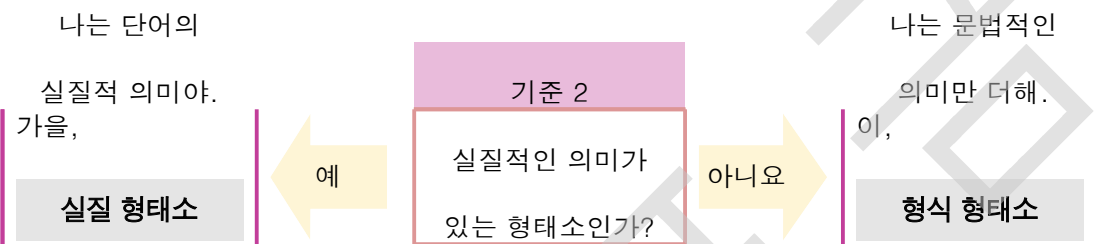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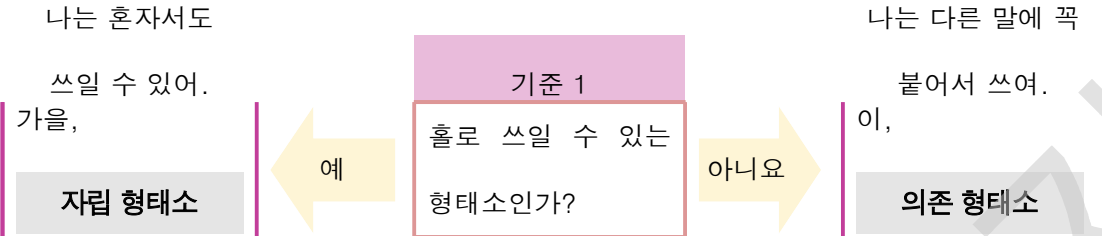
단어	형태소	개수
종이	종이	1개
손바닥		
지우개		
떠들다		
앉았다		

형태소의 종류 이해하기

2. 형태소의 종류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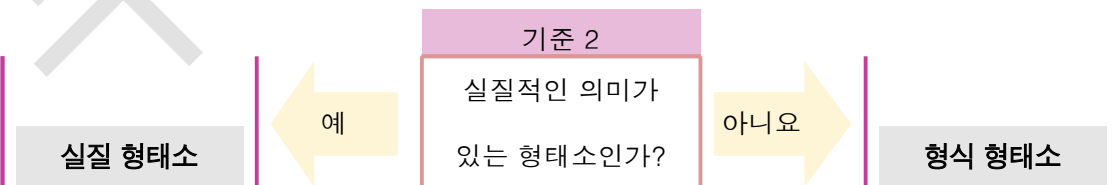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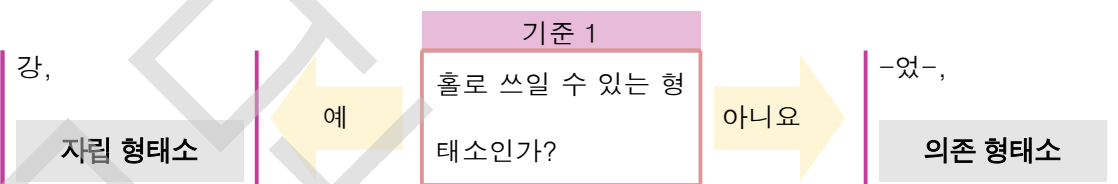
(1) 다음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고,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을 알아보자.

가을바람이 차다. → 가을 이



(2) 다음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고,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강에 물안개가 끼었다.
→ 강 -었-



핵심 정리

